

# '相生'의 老子적 해석과 실천

金德三\*

目次	
I. 들어가는 말	2 도의 운동과 쓰임
II. 상생의 노자적 해석	3. 상생을 기초로 한
III. 상생의 노자적 실천	사회현실의 비판
1. 도의 '자각'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부지불식중에 우리사회 곳곳에 침예한 대립구조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반면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대립적인 구도가 더욱 농후하게 조성되었고, 그 대립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류에게 가져다주었다.

인류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제시하여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보고 네가 이득을 보는 것은 개운치 못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네가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나 개인이 아닌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개인은 사회적 의무감에 빠져 반드시 승리를 하여야 했다. 비근한 예로 국가대표 축구팀이 외국에 나가 한국을 대표하여 시합에 임할 때,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압박과 부담은 개인 자신의 이해득실을 넘어선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선수단이 귀국하는 공항에서 너무나 현실적이면

---

\* 中國社會科學院 哲學研究所 博士課程

서도 즉각적으로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겨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길 수는 없다.<sup>1)</sup> 반면에 노력의 결과가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자칫 승리라는 것의 본래의 의의와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다.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가치의 상승과 이기기 위한 경쟁을 통하여 상호간에 얻게되는 발전된 가치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잘못된 경쟁으로 말미암아 상호간의 발전된 가치보다, 이긴 자의 공허한 가치와 이기지 못한 자의 실망으로 그 가치를 감소시켰다. 지나친 경쟁과 대립으로 서로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승리라는 획일된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왔기 때문이다.

인류가 발전해 나아가고, 우리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인류사회에 경쟁이란 것을 배제시킬 수 없다면, 경쟁을 배제시킨 논의는 그 자체가 현실을 망각한 사상누각이 된다. 그렇다면 경쟁을 하여도 서로가 발전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결과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상생相生”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립과 경쟁 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원수를 둘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때 쉽지는 않겠지만, “칼에는 칼” 식으로 원수를 대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평화와 사랑이 존재하기가 힘들 것이

---

1) 사족이지만 한마디 덧붙이겠다. 2002년 한국에서 치를 월드컵에 대한 국민과 매스컴의 관심은 단연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염원 이전에 우리의 실력을 좀 더 이성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면, 16강에 진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1승을 거뒀보지 못한 우리에게 부담스런 목표이다. 그런 부담스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경품과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 관심과 금전을 기초를 쌓는데 투자했어야 했는데, 웬지 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 어찌되었건, 게임은 이겨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한다. 보는 이와 하는 이와, 오는 이와 맞이하는 이가 모두 즐거워야한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을 즐기는 “상생”원리이다. 월드컵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하는 기나긴 축제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희망에 사로 잡히다보면,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제사가 된다. 지나친 이상에 사로잡혀 꿈으로 설레이기보다, 우리는 대회 개최국으로서 멋진 손님맞이 준비와 세련된 대회운영으로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의 진정한 즐거움을 도박하듯 해서 얻은 우연한 승리에 두어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의 숙원인 16강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대회를 주체하는 우리에게 16강 진출 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산적해 있다. 게임의 최고의 가치인 승리 외에 주최국인 우리는 또 다른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 이것들을 살리고 계발하여 서로가 즐거운, 축제 자체를 모두가 즐기는 상생적 마인드로 이 제전祭典을 개최해야 한다.

다. 사회는 이러한 방법보다 서로의 원한을 푸는 성숙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해원解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원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쌍방 모두가 화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싸움보다는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 화해는 결국 조화로운 삶을 유지해 가면서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음과 획일을 요구하고 강요하면서 조화하지도 못하는 동이불화同而不和한 사회로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필자는 이 문제를 노자의 방식으로 풀어 보려한다. 예를 들어 높고 낮음이 있어도 그 가치에 얽매어 서로를 멸滅하게 하기보다 상반상성相反相成의 큰눈으로 “높이”라는 조화로운 것을 만드는 식의, 앞과 뒤라는 것이 있어 순서를 따지며 다투기 보다, 각자가 도리를 다한 상태에서 “길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드는 식의 방법이다. 이처럼 수천 년 전 노자가 강조하였던 주장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Ⅱ. 상생의 노자적 해석

상생이란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로,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상생이란 말의 일반적 함의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난 뒤, 상생이 노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으며, 상생을 노자식으로 풀이한다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상생이란 말은 그 글자를 풀어보면 상相과 생生이다. 여기서 상相은 서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생生은 낳는다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대에 상생이란 말은 오행설五行說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금금이 수수를 낳고, 수수는 목목을, 목목은 화화를, 화화는 토토를, 토토는 금금을 낳는 것”에서 상생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더불어 상생상극相生相克이라하여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운행이 서로 조화되는 관계와 서로 조화 될 수 없는 관계를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손자孫子·세勢』에 보면 “奇正相生 如

循環之無端 孰能窮之”라고 하였으며,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발견된 백서갑본帛書甲本『노자老子·도경道經』을 보면 “有無之相生也”라고 기록되어있기도 하다.

이상에서의 상생의 의미는 사물이 모순矛盾과 전화轉化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생의 의미는 그 자체에 어떠한 의미를 두기보다, 어떤 현상을 표현하고 나타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들어, 그 자체에 의미를 더 부과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산龜山사상에서 사용되는 상생이다. 『전경』공사 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sup>2)</sup>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3)</sup>

여기서 말하는 상생이란 선천先天을 지배하던 개인과 개인, 종족과 종족, 국가와 국가, 인간과 신神(종교)간에 얽힌 대립과 투쟁의 상극相克 원리를 벗어나는 혁명적 전환으로서의 새로운 원리이다. 이러한 상생은 서로의 한을 푸는 해원解冤을 필요로 한다.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2) 『典經』大巡眞理會編纂, 大巡眞理會出版部, 1989, 「공사公事」제一장, 3.

3)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상생”이란 말을 더 발견할 수 있다.

「예시豫示」

6.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

9.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10.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셨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원한과 원망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생은 해원의 적극 실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道이고, 이러할 때 선경仙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생의 의미는 그대부분이 증산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는 것으로 종국에 가서는 서로가 잘된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가 대립과 투쟁을 일삼아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한을 풀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가 승리勝利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 일부에서는 win - win게임으로 상생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노자의 상생관을 알아보기로 하자.

『노자』에서 “상생”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상생”이라는 글자에 초점을 맞추어 『노자』 내에서 사용된 “상생”이란 글자를 찾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생”의 의미에 맞추어 『노자』 내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의 방법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후자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시켜나가겠다.

앞서 잠깐 언급한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발견된 백서갑본帛書甲本 『노자老子·도경道經』의 “有無之相生也”라는 기록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왕필王弼본에는 “故有無○相生○”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상공河上公본의 기록과 일치한다. 한편 용흥관龍興觀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故有無○相生○”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1993년에 발견된 곽점죽간郭店竹簡 갑甲본에는 “○又亡之相生也”로 기록되어있다. 『노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상생”을 사용한 의미는 대체적으로 현행 왕필본 2장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상생”이란 글자를 그것이 사용된 원래의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그 글자에 입각하여 『노자』에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잘된다는 서로가 생존하고 서로가 승리한다는, 앞서 살핀 일반적인 “상생”의 의미와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자

의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한다. 有無相生”는 뜻을 좀더 분석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있음과 없음의 표면적 의미는 진고응陳鼓應이 지적하였듯이<sup>4)</sup> 현상계에서의 사물이 존재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11장에 나오는 “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에 사용된 “有·無”의 뜻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1장에 사용된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의 도를 표현한 유·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의미하는 뜻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있음은 없음으로 인하여 없음은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높고 낮음이 어울려 경사를 만들고, 길고 짧음이 서로 어울려 형체를 만들듯이, 있음과 없음이 서로 어울려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은 그 가운데 공간의 없음과 구조물의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방이라는 것이 존재하게되고, 그릇도 가운데의 없음과 그릇외형의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릇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sup>5)</sup>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은 있음과 없음의 조화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자철학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陽이란 것을 선호한다면, 노자는 사회와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과 사색에 근거하여 이미 양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음陰의 기능과 가치를 알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양만을 중시하고 선호하는 사회에 대한 경고로 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도록 제창하였다. 또한 노자는 사물은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변화를 가지게 마련이라는 초기변증법사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칫 운명론적으로 노자를 해석하고 그래서 운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고와 자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빠져 사회의 잘못과 부정을 개혁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하기 쉽다. 그래서 과거 한 때 일부 사람들에게 노자의 사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나, 자신의

4) 『老子註譯及評介』 陳鼓應, 中華書局, 1996年, 65쪽 참조.

5) 『노자』 11장(이하, 『노자』 인용문은 책이름을 생략하고 장만 표시하겠다.):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이처럼 있음이 이로움이 됨은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이며, 도는 이 모두를 소중히 여긴다.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노자철학은 소중한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었다.<sup>6)</sup> 예를 들어 그들은 “장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그와 맞서지 않고, 남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남의 아래에 처한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아니함의 덕이라 하고, 이를 일러 남을 이용하는 힘이라 하며, 이를 일러 하늘과 짝하는 오래된 법도라 한다”<sup>7)</sup>라는 말들을 그들의 처세철학으로 혹은 그들의 운명관으로 받아들여 위로 삼으면서 난국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노자는 다투지 말 것(다투지 않는 덕不爭之德)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노자 사상의 전부였다.<sup>8)</sup> 노자의 이러한 방법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불이 날 집을 없애버리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아있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노자의 사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의 “物極必反”의 초기변증법 사상은 사회와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색을 통하여 얻은 천하만물의 운행법칙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順其自然한 모습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사물의 운행법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행법칙이 인간의 인위적인 작용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시이론이다.<sup>9)</sup> 큰 흐름은 모두가 그것을 따르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이끄는 것은

6) 이러한 사상을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개인적인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사상은 어느 정도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일조를 하여 왔다. 고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커다란 환난을 겪고 건립된 새 왕조는 대부분이 노자철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노자 철학을 이용하여 통치자의 탐욕을 조정하고 사회와 국가의 생산력 회복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7) 68장: “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 善用人者爲之下, 是謂不爭之德, 是謂用人之力, 是謂配天古之極”

8) 이러한 “다투지 아니한다.不爭”는 표현은 「노자」에 여덟 번 정도 출현한다. “不尙賢, 使民不爭”(3장), “水善利萬物而不爭, ……夫唯不爭, 故無尤(8장),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22장),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66장), “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 善用人者爲之下, 是謂不爭之德, 是謂用人之力, 是謂配天古之極”(68장), “天之道, 不爭而善勝”(73장), “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81장)

9) 거시이론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여기서 일부로 “거시”라는 말을 쓴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구분과 비슷하다. 또한 이것은 黃仁宇가 역사를 바라보던 “거시”적인 방법과도 통한다.(「巨視中國史」黃仁宇 지음, 홍광순, 홍순도 옮김, 까치, 1997)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사회에 그렇게 정치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자세로, 사회와 현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음을 말하는 것은 음이 양보다 중요해 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쪽만 알고 따르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자는 그가 살았던 당시에 가진 자들과 힘있는 자들을 향하여 끝없는 비판과 자성을 촉구하였다.

노자는 도를 알았다. 그리고 그 것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판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음과 양이 함께 조화되어 나아가면서 “反者道之動”이라는 운행법칙을 따르는 “상반상성相反相成”으로서의 노자적 “상생”관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 Ⅲ. 상생의 노자적 실천

노자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의 사회적 환란 속에서 그의 사상을 살찌운 사람이자 철학자이다. 그래서 앞서 말하였듯이 자칫 노자의 철학은 환란을 무사히 넘기는 철학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노자 철학의 일부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러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자의 철학을 말하는데 있어 사람들은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소극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고, 장자와 더불어 노자를 “위기 극복의 철학”이라고 보아 왔다. 그의 “상생관”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는, 그래서 당하는 자는 늘 당하며 살고, 못 사는 자는 늘 못 사는 그러한 없는 자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는 “상생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앞서 말한 “物極必反”처럼 ‘언젠가는 스스로 나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 삼거나 혹은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 하는 체념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적극적인 의지와 어려움을 개척해나가는 개척의지를 무마시키는 사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노자철학의 핵심과 노자 철학의 근본적인 취지를 간과한 채, 너무 쉽고 안일하게 노자를 이해하려 하였던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그 이상을 보았고, 당장의 환란만을 극복하고 견뎌낼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러한 것들의 뿌리를 찾아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해결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의 말들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매우 깊고 심각하게 반영하였다. 결국 이처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해결을 찾는 노자사상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상생”의 노자적 실천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첫 번째로, 사회와 역사의 관찰을 통한 “도”의 발견이다. 두 번째, “도”의 운동과 쓰임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는 相反相成의 상생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앎과 깨달음에 기초하여 사회와 현실에 대한 “상생”적 비판이다. 노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상생”의 실천을 통하여 그가 바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꿈꾸었다.

## 1. 도의 자각

노자는 뛰어난 사변 철학자다. 노자가 뛰어난 사변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그의 직업과 그가 살아온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다. 어떤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앵겔스는 “모든 시대의 이론적 사유는……상이한 시대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식과 상이한 내용을 갖는 역사적 산물”이라 하였는지 모른다.<sup>10)</sup>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 노장신한열전老莊申韓列傳에 의하면 노자는 춘추 말기 사람으로 주나라 왕실의 사관을 지냈다고 하였다.<sup>11)</sup> 사관제도는 주나라 이전인 하殷夏殷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여 있었다. 사史라는 것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뉘어져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에는 대사大史, 소사小史, 내사內史, 외사外史, 어사御史 등이 있었다. 『한서』에 따르면 “좌사는 말을 기록하고, 우사는 일을 기록한다. 左史記言 右史記事”고 하였는데, 일을 기록한 것은 『춘추春秋』가 되고, 말을 기록한 것은 『상서尙書』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대周代를 포함한 선진시기에는 “사관”의 기능이 실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사관史官”이라는 것이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관이란 직업은 대

10) 『자연의 변증법』 앵겔스, 황태호 역. 전진 출판사, 1989년, 43쪽 참조.

11) “老子者 楚苦縣厲鄉曲仁里人也 姓李氏 名耳 字聃 周守藏室之史也”

부분의 책들이 조정에 잘 보관되어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특성상 누구보다도 이 책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직위를 이용하여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 그들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하였으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도가는 다른 어떤 학파보다 사회와 세상을 가장 깊게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자는 그의 이러한 직업적 성격에다, 중국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던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면서 그의 사변적 자세를 더욱 배가시켰다.

노자가 살았던 시기는 과거의 노예제도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봉건제도가 점차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철기의 보급이다. 당시의 사회는 철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수많은 노예들이 노예주의 손을 벗어나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게되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급기야 사회체제의 변화를 매우 크게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쳐, 춘추 초기의 경우 100여 개에서 180여 개 정도였던 제후 국가들이 장자莊子가 활동하던 전국 중엽에 이르러서는 10여 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 중에서 세력이 매우 강한 것은 일곱 개 정도로 좁힐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었으며 한번의 대규모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기록에 남겨진 당시의 전쟁 횟수만도 1200회를 넘어 선다.<sup>12)</sup> 또한 당시는 정치 제도의 변혁과 철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경제와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게다가 전쟁에 쓰이는 살상용 무기와 자본도 앞선 시대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춘추시대의 전쟁

12) 예를 들어, 노자 묵자, 공자의 시대에서 특히 공자가 활동하고 생활하였던 시기인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년간 각종 전쟁의 횟수가 90여 차례 일어났었다. 그리하여 「묵자墨子」 비악非樂편에서는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없고, 추위에 떠는 자가 옷을 얻어 입을 수 없으며, 피곤에 지친 자가 쉴 수가 없었다. 飢者不得食 寒者不得衣 勞者不得息”고 당시를 묘사하였다. 이것은 노자가 활동하였던 시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러한 시대적 한탄은 「노자」의 글에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뒤의 시기를 살았던 맹자의 글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맹자孟子」이루상離婁上의 글을 보면 “땅을 다투는 싸움에 죽은 자가 들판에 가득하며, 성을 다투는 싸움에 죽은 자들이 성에 가득하다.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고 말하여 이로부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다.

은 수적인 면에서 한번의 싸움으로 승패를 가르거나 혹은 전쟁의 성격상 자기 지역을 방위하는 전투가 많았지만, 전국시대에는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으로 그 규모, 범위, 횡수가 많아졌다. 『사기』의 기록과 같이 노자는 오랜 기간 동안 주나라 도서관의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옛 질서의 몰락과 주周 왕조의 쇠퇴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변해가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래서 『노자』 곳곳에는 사회의 이러한 격동과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자는 역사와 사회와 자연의 관찰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도”에 귀결시켰다. 그 도라는 것은 알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그러한 “도”의 원리와 이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바로 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나 사회, 혹은 우리와 더불어 있는 우주 만물 속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자연의 “일정함常”이었다. 즉 늘 그러한 “상도常道”는 우리 인간사회가 보고 추구하는 근시안적이고 즉시적인 것들을 뛰어넘는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늘 그러함 속에서 발견되는 세세대대世世代代의 원칙이었다. 노자가 보기에 이러한 도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sup>13)</sup> 그러기에 “도”는 가장 큰 것(太一)이고, 가장 높은 것이면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것이었다.

또한 영원하고 항상된 천도天道만이 아닌, 사람과 사회의 도道에도 강조를 두어 “천도는 이롭게 해줄 뿐 해치지 아니하고, 성인의 도는 남을 위해 줄 뿐 다투지 아니한다.”<sup>14)</sup>고 말하면서 인도와 천도를 함께 말하였고, “천도는 다투지 아니하지만 잘 이긴다.”<sup>15)</sup>고 하여 인간 사회의 일들 속에서 천도의 위대함을 본받고 배우려 하는 가운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려 하였다. 결국 도에 바탕을 둔, 그의 상생관은 다툼을 배제한 승리를 미리부터 담보하고 있었다.

13) 37장: “道常無爲而無不爲.”

14) 81장: “天之道，利而不害，聖人之道，爲而不爭”

15) 73장: “天之道，不爭而善勝”

## 2. 도의 운동과 쓰임

노자는 도의 운동과 쓰임을 설명하여 “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며,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라고 말하였다.<sup>16)</sup>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도의 운동과 쓰임이다.

먼저 도의 “쓰임”을 보기로 하자. 왜 노자는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고 말하였을까? 또한 노자가 말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노자』 철학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그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약한 것들인 “낮음”, “약함弱”, “빔虛”, “고요함靜”, “부드러움柔”, “작음小”, “암컷” 등과 같은(장자莊子식으로 말하자면 무용無用한 것들) 것들이다. 약하다는 것은 『노자』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 요구나 사회적 정황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전쟁과 혼란으로 점철된 당시의 삶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것이 더 생명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백성들과 군주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당장 여기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약한”소리나 하고 앉아 있다니, 누가 나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데 노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낮음”, “약함弱”, “빔虛”, “고요함靜”, “부드러움柔”, “작음小”, “암컷”과 같은 약하다 약한 것들을 들고 나왔을까? 여기에 바로 노자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묘미가 있는 것이다.

어찌 도에 있어 약함과 강함이 있고, 낮음과 높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사는 이곳에는 그것이 명확히 구분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약함”들을 찾기보다. “강함”을 기를 쓰고 찾아 나섰다. 그러나 도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 한쪽만 보아,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것인 것으로만 생각한다.<sup>17)</sup>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sup>18)</sup> 마찬가지로 세상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한 것이 아닌 강한 것이 될 수

16) 40장: “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 이것은 도의 운동이 순환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설명이다. 이것은 주로 노자사상의 변증법적 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것에 의해 노자 철학은 중국 변증법의 시조로 해석되었었다.

17) 2장. “天下 皆知美之爲美”

18) 2장: “斯惡已”

도 있다. 그러나 안쓰럽게도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홀로 서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는<sup>19)</sup> 도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가치 판단과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기에 사회는 혼란과 어지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 노자는 사회의 혼란과 어지러움의 해결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들의 욕망과 반대되는 “약한” 것들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기에 노자가 말하는 “약함”은, 정말 약한 것들이 아니었다. 노자는 약해 보여 무용無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큰쓰임大用을 간파하고 있었다.(물론 이것은 장자에 와서 더 심해졌다.<sup>20)</sup> 이것은 노자가 말하였듯이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말과 같다”<sup>21)</sup>고 한 것처럼, “약함이 아닌 (강함을 내포한)약함”을 의미하고 있고 결국에는 “강함”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예를 들면,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은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마음대로 부린다”,<sup>22)</sup> “과인즉 차게된다”,<sup>23)</sup> “굽은 즉 온전하다”,<sup>24)</sup> “몸을 뒤로하나 앞에 놓인다”,<sup>25)</sup> “유약함은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sup>26)</sup> 등, 여러 곳에서 노자가 주장하는 “약한” 것들의 “강함”됨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약한 것들이 “도의 쓰임”에 더 적합하였고, 그래서 “弱者道之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자는 “약함”이 “강함”으로 되는데 있어, 인간사회처럼 다툼과 투쟁의 방식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노자가 “약함”을 강조한 것 자체가 인간사회의 다툼과 투쟁이라는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러한 것들을 주장 할 수 있겠는가? 노자가 비록 “유약함은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sup>27)</sup>라고 말하였지만, 여기서 “승勝”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강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상생”을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다툼과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 다툼과 투쟁을 종식

19) 25장. “獨立而不改”

20) 이것은 후에 장자에 의해서 “無用之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不譴是非”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

21) 78장: “正言若反”

22) 43장.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23) 22장. “窪則盈”

24) 22장: “曲則全”

25) 7장. “后其身而身先”

26) 36장 “柔弱勝剛強”

27) 36장. “柔弱勝剛強”

시키는 “상생”적 승리이다. 그러기에 강함을 이기는 약함은 강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反者道之動”이라는 도의 움직임을 따라 “相反相成”으로 향하였다.

“反者道之動”은 앞서 “도”를 설명하면서도 인용하였지만, “反者道之動”에서 반反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대립되다는 상반相反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간다는 반返의 의미이다.<sup>28)</sup> 결국 도의 움직임을 상반적인 대립을 통하여 근본적인 시초로 돌아가는 것이다.<sup>29)</sup> 상반相反이라는 말은 이미 그 속에 대립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함에 상반되는 것은 강함이다. 그러나 약함의 상반적인 대립은 강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갈 때 유약한 것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인간들의 투쟁과 다툼이 종식될 수 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열과 대립이라는 다툼과 투쟁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승리이자, 노자의 상반상성으로서의 상생적 승리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시초로 돌아가는 도의 움직임을 이행함으로 얻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약함과 강함과 같은 反과 正의 대립은 이미 그 속에 상성相成을 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노자』 2장의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이라는 말을 통하여, 세상만물은 서로 상반 대립되는 상태 속에 형성된다는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원리를 알고있다. 현상세계의 모든 가치와 존재들은 서로가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의존하고 보완하고 있다.

“약함”들의 “강함”됨은 이미 새로운 형태로의 “강함”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도라는 것에 있어서 그 움직임을 인간세상의 일들처럼 투쟁과 경쟁으로 움직이겠는가?<sup>30)</sup> 그리고 그 움직임을 결과가 어찌 강함들의

28) 1. 相反; 對立面, 2. 返. (『老子註譯及評介』 陳鼓應, 中華書局, 1996년, 223쪽 - 226쪽 참조) 더불어 朱謙之의 『老子校釋』(中華書局, 2000년, 165쪽)을 보면 이 “反”의 뜻에는 “返”이 뜻 외에 “反”, “復”의 뜻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返”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竹簡 甲本 『노자』를 보면 “反”자가 “返”으로 되어있다. “返也者 道○僮也”(『郭店竹簡《老子》校讀』 彭浩, 湖北人民出版社, 2000년, 258쪽)

29) 이점에 있어서는 『老子註譯及評介』 陳鼓應, 中華書局, 1996년, 223쪽 - 22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잘못된 전철을 내포하고있는 “약함”들이겠는가? 相反相成에는 인간사회의 관념으로 보기에 대립되어 보이는 “有無”, “難易”, “長短”, “高下” 등의 것들이 있다. 그러나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도의 움직임이란 것은 “反者”인 “無, 易, 短, 下”등이 도의 움직임을 통하여 “有, 難, 長, 高”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노자가 바란 도의 움직임에 따르는 “약함”의 움직임은 “강함”을 껴안고 함께 “生, 成, 較, 傾, 和, 隨”같은 것들을 “相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성”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상생”이다. 正과 反이 만나 正과 反이 함께 잘 되고, 그러면서도 正은 正대로 反은 反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正과 反을 뛰어넘어 합성을 만들어 내는 相反相成으로서의 相生이다. 전자는 세력이 정으로 혹은 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불안함을 지닌 반면, 후자는 둘이 하나로 합쳐져 공동의 목표 속에 안정을 찾게 되는 형태를 띤다. 물론 그 숨이 또 다른 反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대립과 투쟁을 거쳤던 전 단계의 反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변증법적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엄밀히 말해 노자의 눈에 완전한 대립의 종식은 자연과 사회의 관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립을 어떤 식으로 이끄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었을 것이다. 노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끝없는 대립과 모순의 순환을 올바르게 이끌고 궁극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진정한 도의 움직임을 “약함”라는 이중적 의미를 통하여, 우리 인간 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다.

### 3. 상생을 기초로 한 사회현실의 비판

결국 이러한 도에 의거한 진리 보여주기를 통하여 노자는 균형잡힌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사람들에게 한쪽만을 바라보며 인간을 편협되게 만드는 지식에 힘쓰기 보다 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다.<sup>31)</sup> 노자는 스스로가 도를 얻고, 다른 사람과 다르며, 세상일이 결

30) 노자는 그 누구보다 투쟁과 경쟁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노자는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夫唯不爭 故無尤”(8장) “성인의 도는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聖人之道 爲而不爭”(81장) “그가 다투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천하가 그와 다퉴 수 없다.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66장)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도의 운동은 투쟁과 경쟁의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국 어떻게 되는 지를 알고, 아울러 대처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여겼다.

노자의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상생”관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도”에 서는 것부터 시작된다. 인간 사회에서의 상생은 서로의 행위가 도리에 맞아야 한다. 사물세계는 서로가 “도”를 따라야한다. 그리고 난 뒤, 상대적인 가치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왕필본 2장에서 말한 사람들이 알고있는 선함은 사실 선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고있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한 것이라는, 세상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획일된 가치판단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 만들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길고 짧음이 있어 형체를 만들고, 높고 낮음이 있어 기울어짐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사실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지고 운행되어지는 않는다. 그에 반대되는 것들이 존재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변화와 발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음양의 대립이 아니라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세속의 상식과 가치판단에 사로잡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인줄만 알고 추악함이 아름다움에서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량함 역시 선량함인 줄만 알고 선하지 않음이 선함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결국 노자 “상생관”은 대립되는 두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 주체의 존재와 조화로 인하여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生)을 내포하고 있다.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상생관은 앞과 뒤라는 것이 있어 순서를 따지기 보다 길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다고 노자가 사회의 악이나 사회의 문제를 방관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하고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것은 도의 입장에 의거한 상생관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라도 각각 도를 따라야한다. 만약 그것이 도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노자는 당시 그가 살았던 사회의 잘못과 부조리들을 향하여 끝없는 비판과 경고를 가하였던 것이다. 상생이란 것은 그저 너와 내가 다 잘된다는 것이 아니

---

31) 48장: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다. 너도 도의 본분을 지키고 나도 도의 본분을 지켰을 때, 비로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끊임없이 개선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자는 당시 사회에다 다음과 같이 무수한 경고를 퍼부었다.

노자가 생각하기에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 자신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며 즐겼다. 그러나 노자는 결국 그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간다고 보았다: “현란한 색깔은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아름답고 묘한 음악은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며,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의 식욕을 해친다.”<sup>32)</sup>

사회도처에 모순이 존재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통치자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귀기울이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며 괴롭히는 현실을 노자는 알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통치자들은 겉으로 교묘하게 꾸며진 효孝와 충신忠信을 강조하였다. 노자가 생각하기에 통치자들이 효와 충신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가 그만큼 혼란 되고 썩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였다. 국가질서가 혼란스러우면 충신이 나타나고,<sup>33)</sup> 가정질서가 혼란하여 어느 한 집도 화목한 집이 없으면 효자가 나타난다<sup>34)</sup>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노자는 서슴없이 백성들의 목숨을 버리거나, 지나치게 자기를 위하거나,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냉혹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노자는 사회의 악이나 사회의 문제를 방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았다. 그는 앞과 뒤, 길고 짧음을 인간세계의 지나친 경쟁과 대립이라는 틀을 넘어 “도”안에서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동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노자는 도에 입각한 상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말하였다. 그는 사물이 다른 면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자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확장시켜야하고, 그것을 쇠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들을 멸망시키려면 먼저 그것들을

32) 12장: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33) 18장: “國家昏亂有忠臣”

34) 18장: “六親不和有孝慈”

일으켜 세워야하며, 그것들을 얻으려하면 먼저 그들에게 주어야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므로 과욕에 차있는 통치자와 권력과 금력을 쥐고있는 자들은 그들의 도리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도를 알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되면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변해가게 된다.

또한 처세적인 측면에서도 일이 잘되고 성공적이지만 공적과 공로에 머무르지 말 것을 말했다. 바로 공적과 공로에 머무르지 않을 때, 공적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인물은 공로가 없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인물은 반대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며,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인물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노자는 유약함이 굳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유약하고 비천하고 암컷의 성질을 가진 지위에 처해야 굳고 강한 것을 이겨고상하고 웅장하게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노자는 사람들에게 청정무위(淸靜無爲)와 스스로 그러한 것(自然)에 머무르는 것을 가르쳤고, 물질적 욕망을 줄일 것을 강조하였다. 노자의 상생관은 이처럼 사회적 관찰에 바탕을 둔 도(道)에, 인식적 전환을 통한 相反相成의 상생관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노자는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현실에 끊임없는 비판을 가하였다.

## IV. 나오는 말

적어도 수 천년이상, 많은 선각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을 실행하며 살라고 사회와 현실에 요구하여 왔다. 그들 대부분은 관용으로써 원한을 해소하고 제거시키길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유가에서는 공자의 말을 빌어 “정직함으로써 원한을 갚고, 덕으로써 덕을 갚는다. 以直報恩 以德報德”<sup>35)</sup>는 해원의 실천적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구호와 외침은 너무 고원하게 들렸고, 이제는 너무 식상하기까지

35) 「論語, 憲問」

하다. 오늘날 일반 사람은 비록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어렵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심적으로나마 이러한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사랑은 없는 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자가 베풀어야 더 가치 있게 돋보이는 것이고, 아래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몸소 행하여야 사랑이라는 것이 생명을 얻어 퍼지게된다. 이것은 권력과 힘이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였다. 손해를 당한 자들이 손해를 입힌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였다. 물론 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만족을 얻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보고 현실을 보면,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순진하였다. 물론 옛 성인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고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왠지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쉬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 먹다 남은 음식을 귀찮더라도 없는 자에게 베풀고 있는가? 어찌면 이것은 그들에게 꽤나 귀찮기도 할 것이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는 부자동네에 살고있는 그 이웃들은 너무 잘 살았고, 못사는 할렘까지 가서 사랑을 베풀기에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귀찮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최소한의 동정심마저 실행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렇게 송고하고 아름다운 미덕을 말하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더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사회가 이나마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진 자들의 교묘한 다스림과 없는 자들의 순진한 복종에 의해서였거나 (물론 이것의 약효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혁명으로 이어졌지만) 혹은 소수 가진 자들의 자각과 없는 자들의 희생에 의해서였다. 비록 우리의 사회가 이와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하고, 우리의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노자적 “상생”의 실천이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원한을 풀어야한다. 이것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노자도 이와 같았다.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다 잘살기 위해, 너와 내가 상생하기 위해,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며 수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주의 원리인 도를 발견하였고, 그 원리에 입각하여 인류와 사회의 상생을 꿈꾸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짧은 것들이 없다. 적어도 그것들이 자기의 도리를 다하였다면 말이다. 그래서 도는 악한 것을 그의 쓰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백성과 군주가 다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 자기의 도리를 다하여야한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는 강하고 힘있는 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혼탁되어 갔다. 그래서 노자는 그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고 힘있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족함을 알아 언제나 만족하고 만족하니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에 그와 남들이 다투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 역시 그와 다투는 법이 없다. 이러한 그가 바로 천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36)</sup>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행동하고 지나치게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과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변해갔다. 노자는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며 살았고, 그 속에서 이유 없이 희생되는 민초들을 보았던 것이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상생은 이와 같다. 도에 제대로 선, 서로(相)가 만나 삶(生)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된 것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하고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바로 노자가 도를 그 중심에 놓았듯이 법치국가인 오늘 우리는 법을 그 중심에 놓아야한다. 여기서 다시 우리사회를 보기로 하자.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우리가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요원하다고만 생각한다. 신문지상에 오르는 일련의 굴직굴직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 불신감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먼저 법치를 잡아야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여하를 막론하고,

36) 66장: “江海之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是以聖人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后之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연줄의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이모든 것들이 공정함이란 단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즉 “상생”의 실천을 위해서는 깨끗함과 공점함이 요청되어지고, 이것을 얼마만큼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그 사회와 국가의 “상생”으로서의 발전이 담보되어진다.<sup>37)</sup>

많은 시간 동안 『노자』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읽혀지면서,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쳤다.<sup>38)</sup> 노자는 사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인간들의 행위를 보면서 서로가 다른 것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현실사회 속에서 강조하였다. 그의 행위는 옳았다. 만약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행동에 있어 실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상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그의 말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혹은 유용성의 측면에서 당장은 가치가 없을 지라도, 그가 제시한 많은 사물의 본질들에 대한 담론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새롭게, 그리고 앞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제공하였는가에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철학이라는 것은 정신공간에 육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세계와 함께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노자철학의 유산을 계승하여, 우리들의 사유능력을 높이는 것은 바로 나의 철학과 사상을 깊이 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

37) 그러나 그러하다고 사회가 和而不同한 모습을 띠까? 정돈되고 질서있는 모습은 가질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만족하기 힘들다 하겠다. 여기에 바로 개인과 사회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 각 개인의 내적 수양이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법치의 질서에 의해 안정이 되었다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정신적 기쁨을 벗으로 한다. 아니, 어느 순간에서는 정신적 기쁨이 이러한 것들을 앞선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노자가 바라던 진정한 상생은 오늘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길 것이다.

38)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와 방법으로 노자철학을 각자에 맞게 이용하였다. 기공에 관심 있는 자들은 『노자』를 기공서와 양생의 도를 말한 책으로 여겨 이용하였고, 군의 전략가들은 『노자』를 병서로 이용하였으며, 노자를 그 사상의 특성에 비추어 유심론자로 보았던 관봉과 임울시도 있었고, 유물론자로 보았던 임계유도 있었다.

【참고문헌】

- 劉寶楠 撰, 『論語正義』上·下(中國: 中華書局, 1998)  
焦 循 撰, 『孟子正義』上·下(中國: 中華書局, 1998)  
郭慶藩 撰, 『莊子集釋』全四冊(中國: 中華書局, 1995)  
司馬遷 撰, 『史記』全十冊(中國: 中華書局, 1982)  
大巡眞理會編纂, 『典經』(한국:大巡眞理會出版部, 1989)  
王弼, 李約 等, 『老子』全二冊(中國: 中華書局, 1998)  
高 明 撰, 『帛書老子校注』(中國: 中華書局, 1996)  
陳 鼓 應, 『老子註譯及評介』(中國: 中華書局, 1996)  
朱 謙 之, 『老子校釋』(中國: 中華書局, 2000)  
彭 浩 校編, 『郭店楚簡「老子」校讀』(中國: 湖北人民出版社, 2000)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中國: 文藝出版社, 1998)  
엥겔스, 황태호 역, 『자연의 변증법』(한국: 전진 출판사, 1989)